



정읍 장명동 새마을부녀회, 밀반찬 나눔 봉사

정읍시 장명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숙)는 지난 10일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밀반찬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이미숙 회장과 회원 6명은 의외로 살아보고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밀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다. 이 밀반찬은 거동이 불편해 외출도 힘들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30세대에게 전달됐다. 일부는 내장상동 공유냉장고에 전달해 저소득층 이웃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미숙 회장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정성가득 음식나누기 진행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12일 신봉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임) 20여명과 함께 신봉동 지역 어르신 40세대에 밀반찬을 나누는 '정성가득 음식나누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에서는 여름철을 앞두고 쉽게 변질되지 않을 장조림 젓갈 등의 밀반찬을 만들어 나누었으며, 함께한 회원들은 '반찬나눔'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과 원활한 관계형성을 맺고 우리 이웃과 지역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시간이다"며 활동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춘향제 자원봉사단 해단식 가져

남원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 김진석)는 12일, 제93회 춘향제 자원봉사단 해단식을 가졌다. 올 춘향제에는 연인원 1,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축제 현장 곳곳에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 친절과 밝은 미소를 띤 헌신적인 봉사로 축제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해단식에서는 축제 기간 중 자원봉사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상을 시청, 화려했던 축제의 여운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자원봉사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전달과 시상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석 운영위원장은 춘향제 기간 자원봉사에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지역어르신들에 행복밥차 운영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가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를 운영해 지역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주위에 훈훈함을 주고 있다. (주)무주양수발전소와 자생봉사단 여성단체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지원, 활동 등으로 전개되는 '온정을 나르는 행복밥차'는 지난달 30일 무주읍 후도마을을 시작으로 설천면 내복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안성면 사전마을, 도치마을 순으로 찾아가길 예정이다. 13일에는 무풍면 고도마을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건장밥상으로 한우탕을 제공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스피치·웅변·시낭송 대회 성료

전체부 대상 권민자·서강원씨 · 최우수상에 김연경·진영섭씨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총본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가 주관하는 '제41회 전국스피치·웅변·시낭송 대회'가 지난 10일 전주교육대학교 교내교육센터 소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스피치·웅변·시낭송 대회는 평화통일, 전통문화, 복지농촌건설을 주제로 하는 행사로 평화통일 정신 함양과 전통문화계승 및 복지농촌건설로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피치·웅변·시낭송 대회와 대회공로자 표창 수여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88명의 연자들이 참가했다.

주요입상자로 먼저, 유치부 대상에 박재해(새싹아린 이집)군과 이은수(알프스유치원)군, 학생부 대상으로 김채린(전남 청암고)양과 위성진(전남 청암고)군이 수상받았다. 전체부에서는 권민자(부안군)·서강원(전주시)씨가 대상을 수상받았으며, 김연경(전주시)·진영섭(익산시)씨가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웅변부 대상은 진문택(전주시)·정차봉(군산시)씨, 특상에 박찬숙(전주시)·김보민(익산시)씨가 차지했다. 스피치부 대상에는 이상숙(전주시)·김대곤(전주시)



씨가 차지했으며, 이은경(전주시)·김하숙(전주시)씨는 특상 정취상(전주시)씨는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시낭송부에서는 박희도(전남 여수시)·조현재(군산시)씨가 대상을 장석순(익산시)·김수정(정읍시)씨는 특상을 수상받았다. 대회공로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권민자(부안군)씨가 전북도지사 표창을, 전옥주(전주시)씨가 전주시장 표창을, 김복자(임실군)씨가 전주시의회의장 표창을, 유자(전주시)씨가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교육 수료식 가져

남원여성새일하기센터에서는 12일과 13일, 수료생과 강사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비 직업교육훈련 리빙케어 정리수납전문가 창업 과정과 한식조리사가 만드는 수제도시락 전문과정의 수료식을 가진다.

정리수납 과정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직장생활과 살림을 병행할 시간이 부족하여 가사노동에 시간을 절약하고 전문적 수납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창업과정으로 총 20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정리수납 및 가사물품서비스 두 가지가 가능한 멀티전문가로 구성된 '깔끔플러스'라는 단체를 구성했다.

수제도시락은 한식조리기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요즘 트렌드인 수제도시락 전문가 양성을 위해 220시간의 교육을 진행, 이를 통해 단체급식조리사로의 취업 연계는 물론 수제도시락 창업가를 양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게 되며, 수료 후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 정리수납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 지양근 센터장은 "직업교육훈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로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생활관, 기말시험 간식 나눔 행사

지난 8일 저녁, 전북대학교 생활관(관장 김경자 교수)이 생활관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말시험 간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기말시험 준비로 학업에 지친 생활관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생활관자치위원회의 생활관이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각 호관마다 준비된 행사 부스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이날 학생들에게 제공된 샌드위치와 음료수는 600명 분량으로 지난 5월 31일 실시한 첫 번째 행사에서는 500명분을 준비해 총 1,100명분이 제공됐다.

특성화캠퍼스 생활관에서도 9일 저녁 100명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별도의 나눔 행사가 마련됐다. 생활관 직영식당에서는 시험 기간 학생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지난주에 '돈마초크' 메뉴에 이어 이번 주에는 '돈가



스'를 준비 중이다. '다 먹으면 A+'라는 문구가 적힌 간식을 받은 생활관생들은 "기말고사 준비로 힘들었는데 든든한 간식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 입암면·감곡면 마을공동체 축제 개최

정읍시는 지난 10일, 감곡문화체육센터에서 입암면과 감곡면 마을공동체 마을교류사업 '井'으로 하나되는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마을공동체의 교류문화 활성화와 마을주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경운 정읍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정읍시의회의 의원들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1부에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버나놀이, 난타 등 마을주민들에게 다채롭고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2부 공연에서는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와 마을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또한, 주민 주도의 음식부스 운영을 통해 각 마을의 대표 음식들을 선보이며 마을간 먹거리를 제공하고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계농협,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개강

장계농협(조합장 박정용)은 지난 9일 2023년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개강식에 다문화교육생 15명과 농가주부모임홍사화(회장 전계자)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결혼이민자들의 이번 교육은 관내 다문화 교육생 15명이 참여하여 농업·다문화정책, 양성평등교육, SNS활용교육 등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정으로 구성되어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정용 조합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이 이루어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계농협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해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비전대, 학습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가져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우병훈)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9일 오전 AI뉴테크실에서 학습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023학년도 1학기 대면·비대면 학습에세이 공모전을 통해 '내가 추천하는 수업, 내 삶을 바꾼 수업'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60여명의 재학생들의 제출한 에세이 중 우수작품들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인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최민 학생(물리치료학과 1년)을 비롯하여 최우수상에 김효민 학생(응급구조학과 1년), 우수상에 한지혜 학생(유아교육과 3년) 3명, 장려상에 김지수 학생(치위생과 1년)의 13명 등 총 20명의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최민 학생은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과 다양한 지식교환의 시간을 가졌던 지난 한학기를 되돌아 볼 때, 내만의 최적화된 학습 효과를 높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더불어 대상까지 받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들의 에세이는 우수작 시제품으로 제작되어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우병훈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본 공모전이 우수한 수업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교수자, 학습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비전대,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받아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우병훈)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주)다우데이터로부터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를 위한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받았다.

12일 전주비전대 AI뉴테크실에서 거행한 이번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 이근상 신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보좌관, 김미선 교목 실장 등이 참석하고 (주)레뷰 한국ATC센터의 채승범 대표이사 및 (주)다우데이터의 이용 이사, 전태규 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병훈 총장직무대행은 "산업계와 지역사회, 대학 간에 국제 경쟁력의 동반 강화를 위해 전주비전대와 관련기관, 업체 등의 많은 분들이 전주비전대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번 (주)레뷰와 (주)다우데이터에서 주신 발전기금도 지적토목학과 학생들에게 지원해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감사의 인사말을 건넸다.

(주)레뷰의 채승범 대표는 "지·산·학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전제로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다우데이터는 다우키움그룹의 소프트웨어시스템 전문업체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및 결제서비스사업을 이끌며 최고의 고객 성공 지향적인 기업 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대 재학생 위한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

12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가 열렸다.

박병준 총장은 재학생들을 직접 만나 아이스크림을 나눠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운 날씨에 지친 학생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으며 밝은 웃음을 보였다.

박병준 총장은 "기말고사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활력과 힘을 주고 실수를 미치고 돌아오는 4학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